

2015. 3. 9 주간

24
VOL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수급 동향

양념채소 수급 및 수입 동향과 전망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확대’위해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 힘 합친다

■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드라이아이스 이용 애호박 재배기술 개발

■ 정책동향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 해외 농업정보

아르헨티나 농가,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
일간 곡물판매 중지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일은 낮겠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수급 및 수입 동향과 전망
- 해마다 반복되는 배추값 폭락, 회복세 vs 일시현상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감자, 당근, 양배추

- 감 자 : 가공업체 수요 증가와 저장 고랭지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33,000~38,000원/20kg 전망
- 당 근 :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16,500~21,500원/20kg 전망
- 양배추 :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5,500~6,500원/8kg 전망

▶ 양념채소 : 전고추, 양파, 대파

- 전고추 : 상품 600g당 산지가격은 5,50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
- 양 파 : 저장양파 출고량 많아 3월 양파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망
- 대 파 : 겨울대파 출하량 많아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1,350~1,450/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농식품부 · 산업부 · 관세청 힘 합친다!
- ▶ 상반기 곡물 수입단가 하락 전망
- ▶ 중, 절임채소 위생기준 개정 본격화...김치 수출길 열리나

※ 농업기술정보(전남도, 전남농업기술원)

- ▶ 드라이아이스 이용 애호박 재배기술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 생산량 등 향상...재배농가에 도움
- ▶ 저탄소 무경운 농업 전남이 주도
 - 전통농업 복원과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 비 재배교육 실시
 - 품종 선정 및 석회유황을 이용한 종자소독, 병해충 방제 등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 ▶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 ▶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 ▶ 원산지 거짓표시, 잔류농약 위반 첨단기술로 잡는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아르헨티나 농가,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일간 곡물판매 중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저가매수세 및 아르헨티나 농가들의 또 다른 새로운 파업으로 보합
 - 밀과 마찬가지로 저가매수세 및 아르헨티나 농가들의 새로운 파업으로 상승
 -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의 트럭운송 파업완화 및 대두수확 증가에 따른 기술적 매도세로 일주일래 최저치로 하락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20대 남매가 뜻모아 유기농 농산물로 '억대 부농'
- ▶ 고흥서도 월동감자 재배 성공
- ▶ “창의란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고향 같은 사람이 되는 것”
- ▶ 소비자와 함께 즐기는 버섯 체험농장으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 가을 파종용 사료작물 종자 신청
 - 기간/장소 : 3. 9. ~ 3. 16./읍·면 및 지역축협(낙농농협)
 - 신청대상 : 조사료 생산농가
 - 신청초종 : 8종(목초종자 4, 사료작물 4)
- ▶ 제1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 신청기한 : 3. 13.(금)
 - 주최/주관 : 농식품부/한국종축개량협회
 - 참가대상 : 전국 한우사육농가(한우협회·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
- ▶ 2015년 신지식농업인 선발 신청
 - 신청기한 : 3. 18.(수)
 - 신청대상 : 도내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3. ~ 12./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3. 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9)	전주 (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1,100	41,200	41,400	43,600	40,847	↓ 5.7	↑ 0.6
	콩(백태)	35kg	136,000	138,000	140,000	142,000	182,533	↓ 4.2	↓ 25.5
	고구마(밤)	10kg	27,400	27,400	22,880	19,100	25,467	↑ 43.5	↑ 7.6
	감자(수미)	20kg	34,600	34,400	27,920	17,750	29,370	↑ 94.9	↑ 17.8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470	450	398	361	1,051	↑ 30.2	↓ 55.3
	양배추	10kg	6,100	6,600	5,260	4,010	7,188	↑ 52.1	↓ 15.1
	오이(다다기계통)	15kg	42,667	57,000	66,933	60,500	62,411	↓ 29.5	↓ 31.6
	애호박	8kg	24,000	24,400	38,040	29,450	29,270	↓ 18.5	↓ 18.0
	토마토	10kg	28,800	30,200	30,160	37,350	34,476	↓ 22.9	↓ 16.5
	무(월동)	1kg	480	490	450	433	-	↑ 10.9	-
	당근	20kg	20,600	20,800	17,720	17,000	24,240	↑ 21.2	↓ 15.0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817,333	↑ 24.2	↑ 0.3
	풋고추	10kg	94,200	94,600	103,800	98,350	95,380	↓ 4.2	↓ 1.2
	마늘(난지)	10kg	35,200	35,000	34,600	27,700	35,400	↑ 27.1	↓ 0.6
	양파	1kg	670	660	534	720	943	↓ 6.9	↓ 29.0
	대파	1kg	1,450	1,860	1,376	1,265	1,960	↑ 14.6	↓ 26.0
	파프리카	5kg	24,400	26,000	35,680	27,050	34,227	↓ 9.8	↓ 28.7
	방울토마토	5kg	15,800	15,000	20,080	26,800	23,656	↓ 41.0	↓ 33.2
	딸기	1kg	9,600	10,200	11,760	9,700	9,175	↓ 1.0	↑ 4.6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1,600	62,600	60,560	86,800	78,413	↓ 29.0	↓ 21.4
	배(신고)	15kg	37,800	36,800	35,880	45,100	46,340	↓ 16.2	↓ 18.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단위	당일(3/2)	전주(2/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8,000	534,000	567,555	↓ 1.1	↓ 7.0
	들깨	45kg	426,000	430,000	430,000	441,500	372,733	↓ 3.5	↑ 14.3
	새송이버섯	2kg	8,800	8,800	9,740	8,600	-	↑ 2.3	-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37	6,231	6,570	6,127	6,223	↑ 6.7	↑ 5.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15	1,578	1,853	1,825	1,605	↑ 4.9	↑ 19.3
	닭고기	1kg	5,546	5,447	4,905	5,848	5,806	↓ 5.2	↓ 4.5
	계란(특란)	10개	1,951	1,976	1,936	1,907	1,752	↑ 2.3	↑ 11.4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59	↑ 0.2	↑ 1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3. 9.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52 천원	4,781 천원	4,155 천원	↓ 0.6	↑ 14.4
	거세	5,375 "	5,179 "	5,259 "	↑ 3.8	↑ 2.2
송아지 (6~7월)	암	1,876 "	2,016 "	1,471 "	↓ 6.9	↑ 27.5
	수	2,324 "	2,383 "	2,214 "	↓ 2.5	↑ 5.0
육우(600Kg)		3,475 "	3,430 "	2,641 "	↑ 1.3	↑ 31.6
젖소수송아지(7일령)		50 "	39 "	16 "	↑ 28.2	↑ 212.5
돼지(110kg)		381 "	328 "	377 "	↑ 16.2	↑ 1.1
육계(원/kg)		1,809 원	1,857 원	1,661 원	↓ 2.6	↑ 8.9
계란(원/특란10개)		1,264 원	1,270 원	1,251 원	↓ 0.5	↑ 1.0
오리(원/kg)		2,166 원	2,166 원	2,166 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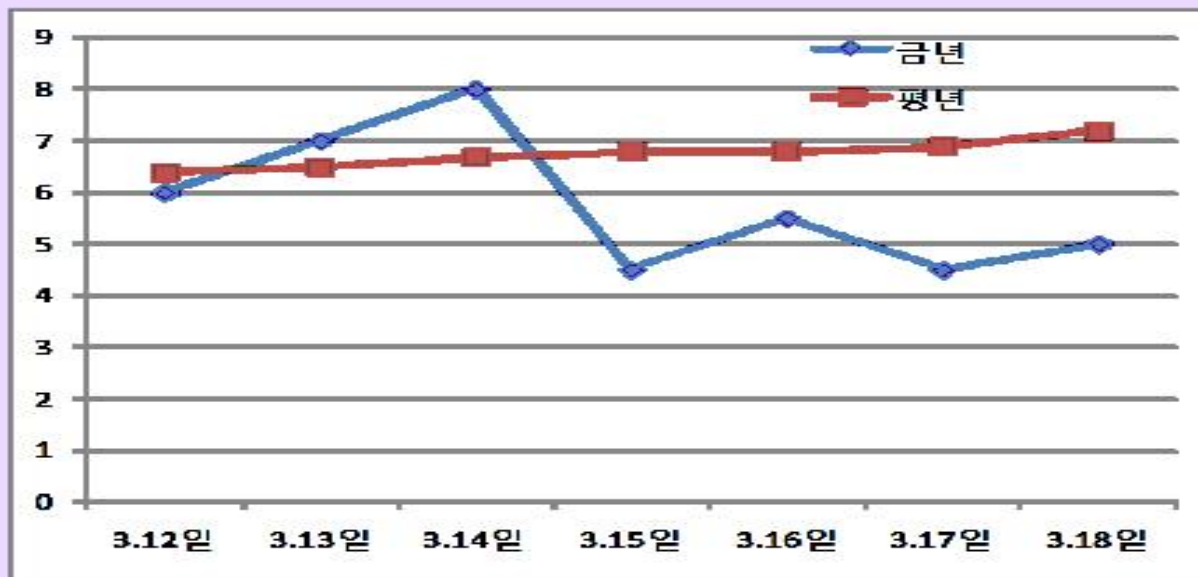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5.8	6.8	-1.0	13.1	12.1	1.0	3.6	2.7	1.0	2.6
3. 12(목)	6	6.4	-0.4	11	11.8	-0.8	1	2.4	1.4	1.9
3. 13(금)	7	6.5	0.5	12	11.9	0.1	2	2.5	0.5	2.3
3. 14(토)	8	6.7	1.3	12	12	0	4	2.8	-1.2	2.5
3. 15(일)	4.5	6.8	-2.3	13	12.1	0.9	4	2.8	1.2	2.7
3. 16(월)	5.5	6.8	-1.3	15	12	3	4	2.9	1.1	3
3. 17(화)	4.5	6.9	-2.4	14	12.2	1.8	5	2.8	2.2	3
3. 18(수)	5	7.2	-2.2	15	12.7	2.3	5	3	2	2.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수급 동향

양념채소 수급 및 수입 동향과 전망

□ 수급 동향

- 2014년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재배면적은 각각 36,120ha, 25,062ha, 23,911ha, 11,282ha이다. 양파 재배면적 중 351ha, 대파 재배면적 중 220ha는 생산조정이 이루어졌다.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생산량은 각각 85,068톤, 353,761톤, 1,564,12톤, 328,898톤이다.
- 2014년 건고추와 마늘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0%, 15% 감소하고, 양파와 대파의 재배면적은 각각 19%, 6%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건고추와 마늘이 각각 28%, 14% 감소하고, 양파는 21% 증가하였으며, 대파는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약 8만5천톤이었으나 이월 재고가 많아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마늘은 평년보다 다소 많은 약 35만톤이 생산되었고, 이월 재고도 적지 않아 가격은 평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양파는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생산조정,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다. 대파는 겨울대파의 과잉물량이 봄으로, 봄대파 물량은 여름으로, 여름대파 물량을 가을로 출하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 연중 출하 대기 물량이 과잉 상태였고 가격도 약세가 지속되었다.

□ 수급 전망

- 2015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마늘과 양파는 전년 대비 각각 4%, 8% 감소하며, 대파 재배면적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농가의 재배의향이 감소하였고, 마늘·양파·대파의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고추는 산지 가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슷한 규모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공급량이 평년 수준인 건고추와 마늘의 가격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가격은 수확기인 4월까지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나 수확기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파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동향 및 전망

- 한·중 FTA가 타결되었으나 양념채소는 양허에서 제외되어 현행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한·중 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중국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나 최근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고추는 냉동고추,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등의 형태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추류 총 수입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냉동고추의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소스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 가공 등 대규모 수요처에서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늘과 대파는 냉동마늘과 냉동대파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현행 수입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양파의 수입은 미미할 전망이며, 건조나 냉동 형태로 가공된 양파 수입량이 커다란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해마다 반복되는 배추값 폭락, 회복세 vs 일시현상

공급과잉에 가격 폭락했던 배추값 상승 전환

지난달 대비 14.8% 올라...5년래 기준 여전히 △40.1%

- 지난해 폭락세를 보였던 배추값이 서서히 회복세로 보이고 있다.
- 배추값은 공급과잉으로 김장철에도 작년보다 절반가격으로 거래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졌다. 하지만 산지폐기와 함께 재배면적이 크게 줄면서 가격하락세가 줄어드는 추세다.
- 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일 현재 배추 1포기 평균값은 2202원으로 일주일전(2월25일)보다 5.9% 상승했다. 한달 전 1918원에 비해서는 14.8% 올라간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상승했다.
- 이같은 가격회복세는 산지폐기 증가에 따라 배추 저장량이 줄어든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배추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 도매가격(10kg·상품)은 4000~5000원(10kg·상품)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배추값은 여전히 5년래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5년 평균 가격이 3678원에 비해 △40.1%가 떨어진 상태다.
- 농촌경제연구원측은 "국산 김치수요가 줄고 있어 배추값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달부터 개학에 따른 학교 급식수요가 늘면 배추값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15. 3. 5.)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감자, 당근, 양배추

○ (감 자)

- 가공업체 수요 증가와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33,000원~38,000원/20kg 전망

○ (당 근)

-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16,500~21,500원/20kg 전망

○ (양배추)

-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5,500~6,500원/8kg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 양파, 대파

○ (건고추)

- 상품 600g당 산지가격은 5,500원 수준의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양 파)

- 저장양파 출고량 많아 3월 양파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망

○ (대 파)

- 겨울대파 출하량 많아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1,350~1,450/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 힘 합친다!

- 부처 합동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 개최 [3.3~4.1, 8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정부는 “국내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이 66.9%인데 반해, 농수산물식품 분야는 23.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 이의 원인으로써 농수산물식품 업계가 대부분 영세하여 복잡한 원산지규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FTA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 금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차이나 데스크, FTA 종합지원센터, FTA컨설팅·교육,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 FTA 활용 촉진 지원 정책(산업부)’, ‘수출선도조직 육성, 물류·통관지원, 현지화·상품화, 마케팅지원 및 정보제공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농식품부)’, 현장컨설팅·홍보, 관할세관 지원업무 등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지원정책(관세청)’,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 ‘농수산물식품 특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도 이루어진다.

- 동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산업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것으로써,
- 작년 12월 천안에서 3개 부처 합동(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 현장시연회를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우수한 활용 가치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 절차 정보, 원산지 인증 관련 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자율발급 편이 등을 제공한다.

*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FTA 양허품목에 속하더라도 ‘원산지 입증’ 조건을 충족해야만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FTA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셨듯이, 농식품 산업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FTA를 기회로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도 FT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對中 농수산물 수출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언급하며

- "한중 FTA로 13억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이 열리게 된 만큼 FTA를 '기회의 문이자 성장 돌파구'로 삼아 농수산업도 수출 유망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설명회가 정부와 농식품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의기투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농수산물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수출요령을 알려주고, 특별히 버스 내에 독립된 상담공간을 설치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주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설명회에는 환변동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한 '농식품 무역보험 지원사업(무역보험공사)' 설명과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사례(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소개도 이루어진다.

- 실제로 정부와 농가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고추장('14년, 전년대비 수출액 18% 증가) · 조제분유(30%) · 딸기(12%) · 배(15%) 등이 미국(13.7%), 중국(4.4%), 아세안(7.0%) 등지로의 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일례로, 미국, 베트남 등으로 팡이버섯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USH)의 경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

아·유럽 등지의 수출길을 확대 개척해 지난 해 1,340만불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다.(국가 전체 팥이버섯 수출액 1,810만불의 74%)

□ 앞으로도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은 우리 농식품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설명회는 ▲ 3월 3일 서울무역아카데미를 시작으로, ▲ 3월 6일 수원상공회의소, ▲ 3월 9일 부산무역아카데미, ▲ 3월 10일 대구상공회의소, ▲ 3월 17일 광주상공회의소, ▲ 3월 1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3월 24일 청주상공회의소, ▲ 4월 1일 대전상공회의소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상반기 곡물 수입단가 하락 전망

- 올 1/4분기 수입단가지수, 전분기 대비 10%내리고 2/4분기는 3%더 떨어질듯 -

○ 올 상반기 곡물 수입단가가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 및 재고량 추정치가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1869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3월 국제곡물 관측자료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도착 예정인 곡물은 주로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한 올해 1~2월에 구매된 것으로 1/4분기에 이어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2010년 1월=100)는 1/4분기가 전 분기보다 보다 10.2% 하락한 102.8, 2/4분기는 전 분기보다

3.0% 하락한 99.7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2/4분기의 경우 2010년 1월보다 곡물 수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것이다.

- 2월 현재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52달러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1월) 전망치보다 0.4% 증가한 9억9281만톤, 재고량은 전월 전망치보다 0.3% 증가한 2억6389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곡물 수입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사료가격지수(2010년 1월=100)도 1/4분기가 115.5로 전 분기보다 0.8%, 2/4분기는 113.2로 전 분기보다 2.0% 하락할 전망이다.
- 한편, 지난해 국내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협회에 따르면 2014년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1869만8000톤으로 전년 생산량인 1893만6000톤 보다 1.3% 줄었다.
- 축종별로는 양계부문에서 총 517만1000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8.0%가 늘었고, 낙농부문도 134만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0.6%가 증가했다. 반면 양돈부문은 596만2000톤이, 비육부문은 495만1000톤이 생산돼 전년보다 생산량이 각각 2.8%, 5.0% 씩 감소했다.
- 이와 함께 지난해 사료협회 소속 회원사의 생산량은 1264만톤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반면, 농협의 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4.5% 줄어든 593만6000톤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해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이 진행된 결과로, 비육 부문 사료 생산량과 농협의 사료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 출처 : 농민신문

■ 중, 절임채소 위생기준 개정 본격화...김치 수출길 열리나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위생 당국은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파오차이 등 절임채소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중국의 위생기준 개정안은 우리 김치 등 비멸균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대장균군 위생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국 내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8일까지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생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출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빠르면 6월, 늦어도 연 내에는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치 업계가 기다려왔던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 수출 김치의 가격 경쟁력 강화·제품 다양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격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개시 되더라도 당분간은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최근 조사한 중국 시장 내 중국산 김치 유통가격은 kg당 2765원(원화 환산)에서 9450원 수준. 종가집 김치 등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대형 업체들의 제품만이 6000원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내수 시장에서 유통 중인 김치 가격은 6000원~1만5000원 정도다. 여기서 국내 유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반입 시 부과되는 관세 25%와 17%의 부가세, 중국 내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현지 소비자가격은 kg당 9000원~1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발생된다. 김치의 세밀한 맛과 품질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리 수출 김치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치 수출업체인 품미식품의 유정임 대표는 “중국수출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격·바이어 선택 등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면서 “중국 현지 제품과의 가격 경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냉장시설이 취약한 현지 유통 시스템도 발효 식품인 우리 김치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이필형 aT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사람들의 경우 중국 김치와 우리 김치의 맛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진출 초기에는 우리 김치의 판매가 생각 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서 한국산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중소 김치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 등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냉장시스템을 고려해 발효 김치뿐만 아니라 볶음 김치 등 상온 유통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드라이아이스 이용 애호박 재배기술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 생산량 등 향상...재배농가에 도움 -

-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애호박 재배 기술이 개발돼 겨울철 시설하우스 애호박 재배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5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겨울철 시설하우스 애호박 재배에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하면 고액의 저장탱크, 기화기 등 시설이 없어도 탄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다 약 19%의 수량 증수가 가능하다.
- 농업기술원은 애호박을 대상으로 저비용이면서도 소규모 농가에 보급이 용이한 드라이아이스 이용 탄산가스 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1천㎡ 기준 고체 드라이아이스(30kg들이) 6개를 시설 내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 약 7일 간격으로 투입한 결과 수확과의 건물함량이 3.4%에서 4.9%로 약 1.5% 증가하는데다 인공수분 후 수확소요일도 약 1일정도 빨라졌다.
- 탄산가스는 햇빛에너지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을 이용해 탄수화물을 만드는 중간재료이다.
- 따라서 물을 통해 흡수하는 필수 무기염류와 함께 탄산가스도 필수 영양분으로 애호박 등 열매를 맺는 채소재배에서는 필수적이다.
- 그러나 겨울철 시설하우스는 한낮을 제외하고는 밀폐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뜨기 전은 900~2천ppm으로 높게 유지되지만 태양이 떠오름에 따라 급속히 떨어져 환기가 가능할 경우 250~300ppm, 밖의 기온이 낮아 하우스가 밀폐된 상태일 때는 100ppm

이하로 떨어져 광합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 조경철 전남농업기술원 박사는 “전남 시설원예농가의 대부분이 저장탱크, 기화기, 자동조절장치 등 고액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액화탄산가스 공급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시설비 및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시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저탄소 무경운 농업 전남이 주도

- 전통농업 복원과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원 등 친환경재배 농업인 56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농업 복원과 저탄소농업 실천을 위한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통농업 복원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한국형 무경운재배 기술이 지구환경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농업기술원 양승구 박사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 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저탄소 녹색기술과 저탄소 인증방법에 대한 소개로 많은 참가 농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무경운농업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며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고 작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분야에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에 이은 무경운 혁명으로 평가받았다.
- 무경운 농법은 앞그루 작물을 재배한 후 경운을 하지 않고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전통농업을 계승한 농법으로 학계에서는 “한국형

무경운 농법”으로 불려지고 있다.

- 전남은 전국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 생산 경영체 92곳 중 전남은 31 경영체 34%를 점유하고 있어 저탄소 농업의 메카로 부상되고 있다.
-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2014년 평가에서 수상하게 된 농림부장관상 2건, 도지사상 1건에 대한 전수식을 진행하였다.
- 수상자로는 84개 매장을 소유한 농산물 유통 전문 유통업체인 영암마트와 Y-마트 김성진 회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완사 천영농조합법인 강경석 대표에게는 도지사상이 수여되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 벼 재배교육 실시

- 품종 선정 및 석회유황을 이용한 종자소독, 병해충 방제 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3.3~4.(2일간)까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 벼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 올해는 우리 도가 친환경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1년차, 지난해에 우리 도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은 40천ha로 전국의 49%를 차지하여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명성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농업인 스스로가 유기농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교육이다.
- 주요 교육내용은 녹비작물 이용한 토양관리, 유기재배에 적합한 벼 품종선택, 석회유황을 이용한 종자소독관리, 잡초 및 병해충 유기적 방제기술 등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된 유기농업 핵심기술의 현장 실용화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 더불어, 벼의 유기재배 실용 기술교육을 위해 현장 위주 교육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기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및 유기 재배지 현장견학을 통해 전문 유기 농업인을 육성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 2015년 한우개량지원 사업에 348억원 투입(전년대비 19% 증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우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7억원(19%) 증가한 3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우개량지원사업에는 육종농가 지원, 암소검정 지원, 한우 씨수소 선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올해부터는 한우 암소개량 지원 등 5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 고능력 씨암소 축군(총 600마리 수준) 조성사업, 우수 수정란 공급 시범사업 및 저능력 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 그간 정부는 1983년부터 씨수소 중심의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의 품질·육량 등 생산성 향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최근 한우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 추세에 있고,

* 한우 거세우 도체중 : ('03) 369kg →('12) 417 →('13) 420 →('14) 425

* 한우 1등급 출현율 : ('03) 33.3% →('12) 58.0 →('13) 64.3 →('14) 65.0

○ 부계의 유전형질만 전달되는 씨수소 개량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체계적인 씨암소의 유전능력 개량은 없었다는 점이 개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행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위주의 개량 체계를 암소의 유전능력까지 고려한 개량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 다양한 한우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우 농가에 정액을 공급하는 보증씨수소 생산에 이용되는 씨암소의 유전능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기 위해 고능력 씨암소 축군(총 600마리 수준) 조성을 추진하고,
 - *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41억원) : 농협 개량원 200두, 지자체 400두
- 고능력 암소를 한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우수 수정란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능력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2개 생축장) : 5천만원/1개소(수정란 생산·이식 비용, 질병검진비, 사료비 등)
 -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2산 이하 암소를 도태하는 사육농가(100천원/두)
- 또한 가축개량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한우개량 빅데이터를 ICT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분석하고, 농가가 보유한 암소 개체별로 맞춤형 개량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한우개량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동 시스템을 통해 한우농가 스스로 보유암소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여 저능력 암소 도태, 계획교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암소 유전능력정보와 검정성적, 외모심사결과, 자손 송아지의 도체성적 등을 함께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의 교배조합 콘텐츠를 구성하여 농가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을 확대하여 한우 근친도를 낮추는 동시에 농가의 선택범위를 넓혀 우량 개체의 선발 확률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보증씨수소 선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를 확대(25두 내외 → 30)하고 씨수소당 정액공급을 감축(12만개 → 10)하여 근친도를 낮추는 한편,
- 씨수소 선발 시 현재 당·후대 점정 및 혈연지수를 통한 유전 능력평가 방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유전체 선발(Genomic Selection)과 초음파 단층촬영기술을 선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상만 과장은 “최근 호주, 캐나다와 FTA 발효 등으로 축산분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산 한우를 수입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한우개량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농가에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우개량지원사업을 농가 맞춤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한 자원화 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 되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 UN 등록 절차 : ①사업계획서 작성 ②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타당성 확인 ③국가 승인 ④UN등록요청 ⑤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⑥검증 및 인증 ⑦탄소배출권(CERs) 발급

- 해당 시설은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로써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1일 8,500kw의 전력(1,275천원)을 생산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검증하여 얻어 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₂(연간 1,224tCO₂)이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았다.

- 향후 10년간 12,214tCO₂를 인정받게 되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 2천만 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여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인증 절차 없이 배출량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의결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로써 이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여,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10년부터 8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110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336천tCO₂를 감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소개>

- ◇ 내 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제공
 - (국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 (농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만큼 농가 추가 소득 획득 및 에너지비용 절감
- ◇ 사업예산 : ('12) 480백만원 → ('13) 550 → ('14) 650 → ('15) 820
 - ('12~'13) 시범사업 → ('15) 본사업(지자체, 기업 참여형 검토 추진)
- ◇ 사업성과 : 농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14,638CO₂톤 정부구매('13~'14)
 - 정부 구매액 : (13) 4,859백만원(5건/60농가) → (14) 9,779(9/172)
 - 방법론 개발 : 시장거래형 5건, 사회공헌형(시장거래형 포함) 15건
 - * 주요 방법론 :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열히트펌프, 미활용발전온배수, 목재펠릿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거짓표시, 잔류농약 위반 첨단기술로 잡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세계최초 「수입산·국내산 혼합 참깨 원산지 판별법」,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한 청국장 원산지 판별법」, 「과실 생장촉진제(에세폰) 신속분석법」 등 농식품 품질·안전관리 첨단 실용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개발된 분석기술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농약 안전성 위반, 양곡 및 국가 인증

식품 허위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관원은 매년 현장 농식품 안전성, 품질관리 정책을 과학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단 실용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 2014년에 농관원 지원, 사무소 등 농정 최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적용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32개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하였다.

○ 연구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생물독소 등 농식품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20개

* 과실생장촉진제(에세폰) 신속분석법, 수출 감귤 중 잔류농약 잔류기간 특성 연구 등

- 참깨, 청국장, 밀가루, 고춧가루, 홍삼 등 원산지 판별법 8개

* 수입산·국내산 혼합 참깨 유전자분석법, 최신기기를 이용한 청국장 원산지판별법 등

- 양곡 및 국가 인증식품 품질 분석 4개 등이다.

* 쌀의 연산 판별법, 벼의 보관조건에 따른 신선도 변화 연구 등

□ 이번에 새로 개발된 첨단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은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참깨 원산지 판별법」은 현재 이화학검정법*을 이용하여 원산지판별을 하는 참깨를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도록 세계최초로 개발한 획기적인 판별법으로

* 이화학검정법: 농산물의 재배환경(토양, 기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점(유기물, 무기물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 판별

* 유전자분석: 국산과 수입산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마커를 분석하여 원산지판별

- 종전의 이화학적 분석법으로는 수입산·국내산의 혼합품 분석이 어려웠으나, 새로 개발된 유전자분석법은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하여 참깨의 지능적인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산지판별 정확도 99% 이상

- 또한, 「청국장 원산지 판별법」은 소비량 및 원료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석법이 없어서 원산지 단속이 어려웠던 것을 NIRS*, XRF** 등 첨단 이화학분석 기기로 판별할 수 있게 하여,

* NIRS(근적외선 분광분석기): 근적외선 흡수·투과 특성을 분석하여 원산지 판별

** XRF(X선 형광분석기):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형광 X선으로 원산지 판별

- 청국장 원산지 단속 업무를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두부, 콩국수, 콩비지 등)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산지판별 정확도 95% 이상

- 「과실생장촉진제 에세폰* 분석법」은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도체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분석시간을 종전의 1/4 수준으로 단축하고,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킨 분석방법으로써,

* 에세폰 : 과실과 채소의 착색, 숙기, 연화를 촉진시키는 생장조정제

** 유도체화 : 대상물질이 잘 분석될 수 있도록 성질을 변환시키는 조작

-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320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농약 성분(에세폰)을 신속·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분석시간: (기존)4시간/점 → (개선)1시간/점

- 참고로 농관원은 현장적용 실용기술 개발 확대를 통하여 농식품의 안전성, 원산지, 품질관리 업무를 첨단 과학기술로 뒷받침 해오고 있는데,

- 원산지 분야의 경우, NIRS·유전자분석기 등 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원료농산물 판별 위주에서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및 혼합제품으로 확대하였으며,

* 첨단기술 이용 원산지검정법 개발(누계) : ('13) 96품목 116종 → ('14) 101품목 122종

(유전자 분석법 : 쌀, 쇠고기 등 9품목 9종, NIRS 등 이화학분석법 : 고춧가루, 인삼 등 92품목)

- 안전성분야에서는 「잔류농약 320성분 동시분석」 등 전문분석기술을 확보하여 저비용 고효율 농산물 안전관리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능력 향상 : ('13)245성분 → ('14)320(증30%)

· (기존) 16.5 시간/점 → (개선) 10.6 시간, 분석예산 205 억원/년 절감효과

- 인증식품 및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의 과학화를 위해

- 「근적외석분광분석기(NIRS)를 이용한 라이신 분석법」 및 「15종 폴리페놀 동시분석법 개발」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농관원은 2015년에도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원산지 판별 등 현장 수요조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한 42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원산지 판별, 품질관리 등 현장 적용가능 기술로 **고분해능질량분석법*** 등 현장 활용형 22개

* 잔류농약 320성분 이외 미지 유해물질 신속 검출법

- 불산 사태 등 신종유해물질 노출사고 사전대비형 6개

- 대사체학* 응용기술, 기능성분 개발 등 기초 기술 14개

* 대사체학(Metabolomics): 농식품의 주요성분과 양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식품분야 첨단기술

- 농관원 관계자는 개발된 기술을 통해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로 발전시키며, 특허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 등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과학농정의 기반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아르헨티나 농가,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일간 곡물판매 중지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수출할당 및 농가의 이윤에 피해를 주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일간 곡물판매를 정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파업은 3월11일 수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 Argentine Rural Society의 리더인 Luis Etchevehere은 “이러한 움직임은 아르헨티나 농가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의 거부의를 표명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전했다.

2008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광범위한 농가반란으로 흔들린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정부수입 또한 축소되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와 곡물분야의 관계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3. 4.(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산 대두가격, 브라질 파업종단 및 수확증가로 일주일래 최저치로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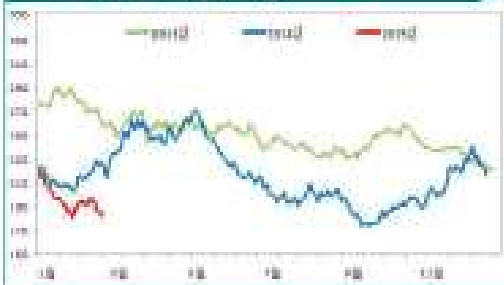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3.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밀	186.66	▲0.1%	200	218
옥수수	150.39	▲0.9%	153	164
대두	370.59	▼0.3%	368	455

위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하얀줄), 옥수수(파란줄), 대두(빨간줄)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3월물)의 장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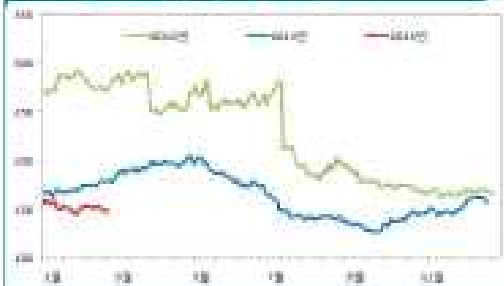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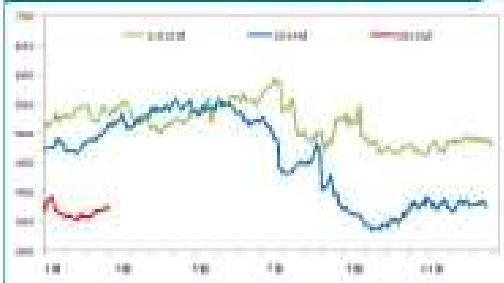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저가매수세 및 아르헨티나 농가들의 또다른 새로운 파업으로 강보합 마감했음. 또한 미국 대공야 및 중서부지역의 최근 강설로 주요 재배지역의 동원기 일이 보충을 받고 있어 동사위협이 완화되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도 밀과 마찬가지로 저가매수세 및 아르헨티나 농가들의 또다른 새로운 파업으로 상승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의 트릭운송 파업완화 및 브라질의 대두수확 증가에 따른 기술적 매도세로 일주일래 최저치로 하락했음. USDA에 따르면 주간 대두 수출검역은 전랑치인 750,000~850,000톤에서 635,164톤으로 감소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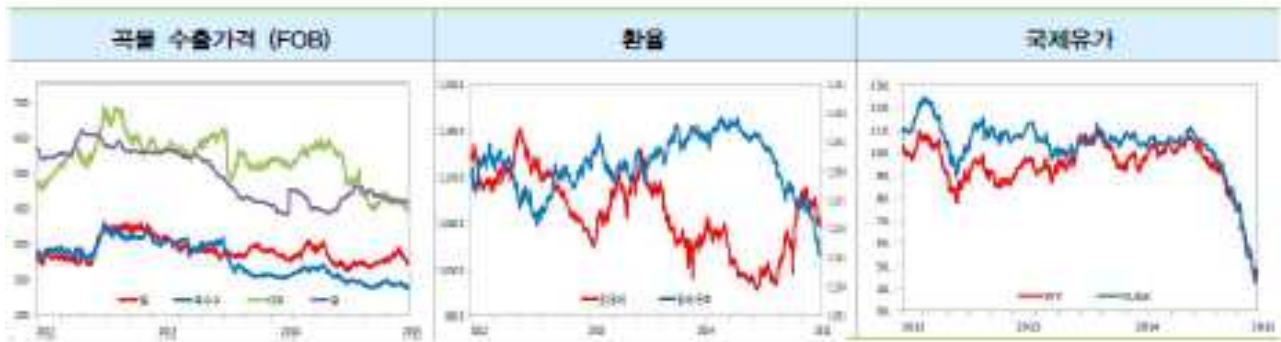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ori.ac.kr/>

관련 동향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리비아 석유수출량 및 유전공격 소식, 사우디 OGP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7	▼1.7%	249	261	284
	옥수수	180	▼0.6%	180	205	265
	대두	401	▲0.5%	401	501	556
	쌀	417	-	418	425	488
환 율	원/달러	1,099	▼0.3%	1,089	1,053	1,095
	달러/유로	1,120	▼1.5%	1.16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48.17	▼5.5%	47.49	92.97	97.94
	Dubai	58.42	▼4.6%	45.77	96.64	105.3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2.11(수출가격), '15.2.27(환율), '15.2.2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회사,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이집트 GASCO는 수입량 110,000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러시아산 85,000톤을 포함함.
- 브라질의 2월 수출량은 868,700톤(전월 85,300톤, 전년 2.8백만 톤)이며 옥수수는 1.1백만 톤(3.2백만 톤, 1.1백만 톤)이라고 함.
- 카자흐스탄 농업부에 따르면 2014/15년 곡물수출은 4.4백만 톤(전년동기 6.0백만 톤)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20대 남매가 뜻모아 유기농 농산물로 ‘억대 부농’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기농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합니다.”
- 전남지역 유기농 쌀과 배추 절임 가공 등으로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젊은 남매 농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남동생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인팜스’의 남매 농군 손모아(27)·병인(25)씨 남매는 유기농 유색미와 유기농 누룽지를 상품화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 손 대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배테랑 농군에 맞지 않은 경영마인드와 농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 지금은 처녀농군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지만 어린시절 손 대표는 자신이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동생 병인씨가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해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농장을 물려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손 대표는 중국어, 통상, 사회복지 등을 전공하며 농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부모님이 일궈 놓은 모인농산의 상품개발,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부모님 대신 상품조사를 하게 되면서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에 이르렀다.
- 손 대표는 동생 병인과 함께 모인팜스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시골로 들어왔을 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농사일을 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격려하기보다는 굳이 힘든 농사일을 왜 딸에게도 물려주려 하느냐 혹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시골에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편견에 처음에는 부모님도 손 대표도 힘들었다.

- 그 이후 2년 동안 모인팜스만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 모인팜스는 손 대표의 부모님의 기존에 재배하던 유기농 기능성 쌀, 유기농 고추, 배추, 무청시래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모든 논과 밭은 유지재배와 무농약 재배로 관리하고 있다.
- 그동안 손 대표는 부모님의 조언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큰 시련이 닥쳤다. 몇해전 3개의 태풍이 연이어 불어 닥치며 새로 지었던 2동의 유기농 고추 하우스 시설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노지에서 유기농 고추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아 수확량을 늘리고자 새로 신축한 하우스였다. 손 대표는 이제 막 초벌고추를 수확하고 두 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던 중에 닥치 자연재해는 손 대표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재배작물이 성공해야만 했다. 다행히 재해현장의 수습이 끝난 후 선택한 유기농 배추 재배에 성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손 대표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생명대 유통CEO과정을 받게됐다. 국내 다양한 농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 손 대표는 “이 교육을 통해 단순히 우리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통해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손씨가 상품화한 ‘할머니 손맛 누룽지’는 일반 쌀을 판매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손씨는 누룽지 판매와 함께 유기농 쌀의 수출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일본 유기농 (JAS) 인증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취득했다. 또 미국, 홍콩 등 3개국과 3천만원 상당의 유기농쌀 수출계약도 했다. 모두 다 누룽지 맛을 본 바이어의 호평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 손씨는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는 과정에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출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고흥서도 월동감자 재배 성공

-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가능했던 월동감자 재배가 최근 고흥의 한 농가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 주인공은 고흥군이 운영하는 혁신리더대학 2기 출신인 서해중, 배영숙씨 부부로 지난해 9월 포두면 남성리 소재 990m² 규모의 밭에 ‘추백’ 품종의 감자를 심어 최근 100% 수확에 성공했다.
- 봄에 파종해 가을에 수확하는 노지 감자는 1상자(20kg)에 2만원~2만2000원선(2014년 기준)이었지만, 이번 월동감자는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해 3만8000원선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다.
- 3년 전부터 고흥에서 월동감자 시험재배교육에 나섰던 김영일 혁신리더대학 지도교수는 "겨울철 기온이 높은 고흥 남부지역에서는 충분히 월동재배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비료나 농약이 필요없는 친환경적으로 땅 속에 그대로 저장하면서 출하시킬 수 있다"면서 "2배나 높은 가격으로 겨울철 농한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 감자를 수확해 지상에 저장하면 수분이 빠져 무게와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땅 속에 그대로 저장하면 보관 비용도 들지 않고 시장가격에 따라 출하시기를 조절해 출하시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 물론 그에 따른 약간의 재배기술도 요구된다. 물 빠짐이 좋은 농지에 심어야 하고 가을철 햇빛에 감자 줄기가 녹지 않도록 심는 방법과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5cm 정도 흙을 덮어주는 등 간단한 농법만 제공되면 한파 피해도 견딜 수 있다.
- 한편, 전남에서 잇달아 월동감자 재배에 성공하면서 제주도 월동감자 재배농가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남에서는 배추파동 당시 대체작물로 월동감자 재배를 시작해 최근에는 100여ha까지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마땅한 겨울철 재배작물이 없었던 고흥에서도 시험재배에 성공하면서 겨울철 농가소득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 또 제주도에 비해 10%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검은 토양의 제주산 감자에 비해 식감이 뛰어난 황토색 감자로 도시소비자들에게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평이다. 시험재배에 성공한 이 농가는 내년 가을 재배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고, 소식을 접한 다른 농가들의 관심과 문의도 계속 늘고 있다.

* 출처 : 광남일보

■ “창의란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고향 같은 사람이 되는 것”

- ‘홍쌍리’ 이름 석 자는 ‘세계 최고의 매실 브랜드’로 통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14호’ 보유자로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 4만7천여 평의 청매실농원에서 매실 농축액 등 3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 연 평균 40억원 매출을 올려 ‘백만불수출의탑(2008)’을 수상하였고, 매화마을이 ‘광양’ 전체로 확산되어 ‘매실산업특구’로 지정(2008)되고, 인근의 하동, 순천, 구례, 해남, 남해 등 남해안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 뿐만 아니라 1995년 홍쌍리 개인이 시작한 광양매화축제는 ‘민간 축제 한 달 최다 관광객(65만여 명)’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연 1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하였다. 광양시는 28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에 달한다고 밝혔다.
- 홍쌍리는 194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1965년 23세에 광양군 다압면 ‘밤나무골 김영감님’의 아들 김달웅씨에게 시집을 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새댁 홍쌍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서막과도 같았다.
- 1971년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았지만 넉 달 동안 하혈을 했다. 건강은 더 악화돼 4개월 후 자궁과 난소를 들어내고 장의 일부까지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붕대를 감은 채 농사일을 했다.
- 설상가상으로 1974년 남편과 시숙부가 별인 광산산업이 망하여 45만여 평의 땅이 대부분 넘어갔다. 당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

와 홍 여사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협박하기 일쑤였고, 이때 남편은 화병으로 쓰러져 33년 간 투병생활을 하였다. 34세에 겪은 혹한 시련에 홍쌍리의 심정이 어땠을까.

- 매실과 첫 인연은 홍 여사의 시아버지인 고(故) 울산 김오천(1902~1988) 선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13년간 광부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밤나무 1만주와 매실나무 5천주를 들여와 재배했고, 일본에서 배운 '접목' 기술을 바탕으로 우량 묘목을 전파하여 1965년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남다른 분이였다.
- 아버지와 유일한 갈등은 밤나무를 베어내고 매실나무를 심자는 것과 밤나무를 지키고자 했던 것. 당시 밤 한 가마를 팔면 쌀 두 세 가마를 살 수 있었지만, 매실은 거들떠보지 않는 시절이였다.
- 홍 여사가 매실나무에 집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매실물에 의해 손이 뽕얇게 씻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매실로 뱃속도 깨끗이 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또 하나의 사연은 1978년 36세의 젊은 홍쌍리에게 찾아온 '류마티스 관절염'. 한 때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 밥을 떠먹을 수 없었고, 혼자서는 머리를 감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한의원의 소개로 매실 발효액을 추천받았을 때 매실이 그런 효과까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2년 7개월 만에 기적처럼 나왔다.
- 이것이 홍 여사가 매실을 선택한 이유다.
- 그 이후로 '매실을 약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밥상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매실장아찌'를 개발했고, 이어서 매실고추

장, 매실된장, 매실절임, 매실젤리, 매실초콜릿 등 총 30여 종을 개발했다. 매실로는 최초로 '전통식품 지정'을 받았고 '제조법 특허'를 내었다. 이것이 '홍쌍리가(家)의 창 의 작품'이다.

- 대부분의 식품명인들은 '먹거리'가 최종 종착지다. 그러나 홍 여사는 '먹거리'에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융합하여 '매실농사=문화관광'이라는 새 등식을 만들었다.
- '매화'와 '다합면 주민'이 화합하는 '매화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홍쌍리'와 '시(詩)'를 결합한 '스토리가 있는 홍쌍리 브랜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농업과 차원이 다른 '다차산업(多次産業)'의 창조이다.
- 홍 여사는 '남과 다름', 그리고 '1등'을 강조하였다. "남과 다른 길을 가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2등밖에 못한다."며 "자신의 분야에서 영혼을 불태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본을 이해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차별화'다.
- 홍 여사의 또 하나의 창 의는 3,000여 개가 넘는 장독대의 수집과 활용, 그리고 '전시'에 있다. 덕분에 이곳은 세상에 하나뿐인 독창적인 포토존이 되었다.
- 그녀는 이 독특한 풍경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모', '취화선', '북경반점' 등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내놓았다. 또 대통령부터 스타 연예인들을 정스럽게 맞이하여 입소문의 진원지

(Viral Marketing)로 만들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한 사람이 만든 매화축제에 100만 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광양시가 너무 부럽다."고 했다.

- 또 개인이 50여 년간 일군 사유지를 모든 사람에게 '사시사철 무료 개방'하였다. 보통 관광지에서는 '주차료', '입장료'를 받지 않던가? 홍 여사는 그런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만큼 그녀의 포부가 크고 넓다.'는 방증이다.
- 홍 여사는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며 "계산하지 말고, 내 허리띠를 풀어라." "보고 싶은 사람, 고향 같은 사람이 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다 베풀게 되어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돈만 벌려고 사업을 하면 절대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프리마케팅(Free Marketing) 경영이론을 홍 여사는 30여 년 전에 체험하고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 청매실농원 직원들은 이를 '퍼주기 마케팅'이라고 했다. 주변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것. 필자가 직접 확인해 보았다.
- 매화마을 방숙자 할머니(68)는 "홍쌍리 여사님은 남자도 못할 일을 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매화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 잘 살잖아요. 그 분 욕하면 죄 받아요.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라고 하고, 이순덕 님(55)은 "저는 축제기간에 청매실농원에서 천리향을 파는데, 홍 여사님이 무료로 개방해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밥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며 '어려운 것 없냐?'고 물어보시고. 동네사람들 다 챙겨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고 했다.

- 홍 여사 스스로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며 "다압면민 덕분에 꽃동산이 되었고, 직원 덕분에 청매실농원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인생이냐."고 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나 혼자 고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청매실농원 직원 30여 명을 '내 새끼'라고 표현하였다.
- 고유석 상무, 오병철 차장, 강복순, 이미선 사원 등은 "홍 여사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로가 서로를 '내 새끼' '내 어머니'라고 하니 청매실농원은 '한 가족'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일상의 다섯 가지 마음'이 인상적이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에 대해 정유인 부사장은 "실제 모습이다. 홍 여사님은 앞뒤가 다르지 않는 분"이라며 "직원들 이야기를 다 듣는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없지 꼭 물어보는 게 홍 여사"라고 했다.
- 필자가 만나 본 홍 여사는 삶 자체가 '창의'로 귀결된다. 평생 동안 '남과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못 배운 농사꾼이요.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촌놈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실은 내가 촌놈이다. 도시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화려한 것보다 '자연'이 더 귀한 것을 모르고."
- 홍쌍리 여사에게 창의란 "인생의 다양한 파도를 넘고, 고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병약한 신랑

과 아이 셋을 돌보면서, 큰 수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 아픈 몸과 싸우면서, 수만 번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손이 호미가 되도록 일하면서, 시를 쓰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지인들과 동네 노인들, 장애인들까지 챙기면서 파도와 같은 인생을 맞보았으리라. 여인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 홍 여사는 "나는 눈이 6개다. 앞도 둘, 옆도 둘, 뒤도 둘"이라며 "나는 출근도, 퇴근도, 정년퇴임도 없는 51년 머슴살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농사가 참 행복했단다. "내가 90살까지 살 수 있다면 '매화천국'을 만들고 떠나고 싶다."며 자신을 농사꾼으로 만들어준 시아버지 은혜에 감사해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남들과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 인생의 큰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 끝으로 "정부가 지역의 토질과 기후 등 특성에 맞는 '문화 작품'으로 농사를 유도해야 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무분별하게 보조를 해주어 오히려 농민들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농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곱아 터졌는지 공직자들이 정성스럽게 살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 한 평생 자신보다 남을 걱정하느라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홍쌍리, 그녀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매화천국의 꿈을 이룬 '아름다운 농사꾼'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 평생 '건강'으로 남을 이롭게 하였듯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찾아 웃을 날이 더 많아지길 소원한다.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홍쌍리의 창 의 요약

1. 건강, '자연(매실)'에서 답을 찾자
2. '먹거리(매실)'에 '볼거리(매화)'와 '이야기거리(詩)'를 융합하다
3. 돈보다 人情, '보고 싶은 사람'이 되라

○ 홍쌍리 여사는 고된 농사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 악화 속에서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힐링을 얻었다. '건강→음식→밥상'이라는 보편적 소재에 '매실'을 선택하였고, 매실을 밥상에 올리 기 위해 '매실짬아찌'를 통해 30여 가지의 매실 응용상품을 개발 하였다.

○ 매실을 '먹거리'에 끝나지 않고, 매화라는 '볼거리'를 추가하여 '매 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농사=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창조하였 다. 독창적인 '장독대 풍경'을 조성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제 공하였으며,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하였다. 또한 시(詩)라는 매개체를 통해 책을 출판하고 '이야기거리'를 제 공하여 '홍쌍리 스토리'를 전파하였다.

○ 그녀는 청매실농원을 '사시사철 무료개방'하고, 유명인사부터 지 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직원을 내 가족처럼 아꼈다. 또 독거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농사꾼'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 출처 : 광남일보

■ 소비자와 함께 즐기는 버섯 체험농장으로

- '자라라' 브랜드 체험키트 개발...농촌 학습장 '각광'
작년 전남농기원 농업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버섯을 직접 키우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은 물론이고 버섯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식생활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라라'라는 브랜드의 어린이용 버섯체험 키트를 개발한 전남 장흥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 차주훈(30) 대표.
- 차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버섯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최근 개발했다.
- 차 대표는 "부모님이 버섯 종균분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유치원때 부터 버섯을 봐 왔기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센터를 찾는 친구나 외지인 분들이 버섯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무척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었다"면서 "제가 경험한 버섯의 성장과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지 고민하다가 키트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차 대표는 버섯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위해 지난 2010년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음해인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 인삼약초부에서 개설한 버섯육종 교실에서 연수도 받았다. 2013년에는 전남 버섯마이스터대학도 졸업했다.

- 차 대표는 버섯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하우를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고 있는 중이며, 종균분양센터 내에 있는 개인 연구실에서 버섯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열정을 바치고 있다.
- 또 농촌관광의 증가와 소비스 영역 확대로 인해 농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도시민들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취미생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주말농장의 인기가 도시농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 주말마다 근교 농장을 찾아 농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직접 사무실이나 옥상 베란다를 활용한 텃밭을 일구기도 한다.
- 이에따라 차 대표가 개발한 버섯체험 키트는 기존의 병버섯 재배 기술과 봉지재배 기술을 접목시킨 방식으로 오염률을 줄여 버섯의 초기 발아를 도와주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했다.
- 이들이 과학적인 체험이 용이하도록 온도계와 습도 조절을 위한 스프레이를 포함, 간이하우스 형태로 제작했다.
- 차 대표 농장에서 생산되는 버섯의 배지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버섯 재배 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차 대표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대량으로 병 버섯을 재배해 도매시장과 장흥에 있는 마트, 식당 식자재회사에 납품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버섯 키트와의 차별화된 아이디어 도입과 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 차 대표는 2013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 '버섯이 자라는 창의력 상자와 오감만족 버섯체험관'이란 사업으로 참여해 우수상을 받았다.
- 또 지난 2014년에는 농업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차 대표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버섯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 차 대표가 개발한 버섯체험 키트는 기존의 병버섯 재배기술과 봉지재배 기술을 접목시킨 방식으로 오염율을 줄여 버섯의 초기 발아를 도와주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했다.
- 또 과학적인 체험이 용이하도록 온도계와 습도조절을 위한 스프레이를 포함해 간이하우스 형태로 제작했다.
- 어린이 상품임을 부각시킨 '자라라'라는 브랜드와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해 어린이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버섯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버섯의 생육과정을 눈으로 보고 배지를 직접 만들어 보며 살아있는 다양한 버섯을 직접 만지며 수확하고 요리도 만들어 보는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도 추진 중이다.

- 차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버섯체험 키트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교육기관에 어린이 교육용으로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라라'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 차 대표는 "어린이 상품임을 부각시킨 '자라라'라는 브랜드와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 어린이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버섯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주일 정도면 키워서 먹을 수 있는데, 세 번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앞으로 임실 치즈마을처럼 버섯을 이용한 그로우 키트 2종을 추가로 개발해 체험키트 판매와 체험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이 아닌 소비자와 함께 즐기는 농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남도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가을 파종용 사료작물 종자 신청

- 기 간 : 3. 9. ~ 3. 16.(6일간)
- 신청대상 : 조사료 생산농가
- 신청초종 : 8종(목초종자 4, 사료작물 4)
- 신청기관 : 읍·면 및 지역축협(낙농농협)
 -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켄터키블루그라스
 - 사료작물 :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연맥, 호밀, 헤어리벳치
- ※ 예상단가(kg당) : IRG 3,093원, 호밀 1,822, 연맥 1,503, 오차드그라스 5,465, 톨페스큐 4,418, 티모시 7,308, 헤어리벳치 5,596
- ※ ha당 소요량 : IRG 40kg, 호밀·연맥 150~200kg, 오차드그라스·톨페스큐·티모시 등 25~30kg

◆ 제1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 신청기한 : 3. 13.(금) ※ 주최/주관 : 농식품부/한국종축개량협회
- 참가대상 : 전국 한우사육농가(한우협회·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신청분야(2개) : 브랜드, 자가생산농가
- 출품 및 평가방법
 - 3두(2014. 4. 1. ~ 5. 31. 출생한 소) 출품
 - ※ 거세 및 친자확인 개체만 출품가능
 - 출품우 발육조사(농장별 방문), 농장 평가, 도축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축 선발
 - ※ 출품우는 종축개량협회에서 동일 조건으로 사육하여 생후 30~31개월령에 도축('16.10월경)

◆ 2015년 신지식농업인 선발 신청

- 신청기한 : 3. 18일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 선발절차
 - 농업인등(신청)→시장·군수(실태조사)→도(추천)→농식품부(선정)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5. 3. ~ 12.(10개월간)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80, 도비 234, 시·군비 546, 자부담 1,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주간
24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